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중공업,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한국거래소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상장 적격으로 확정함. 9월 코스피 상장으로 예상됨. (서울경제)

'컨'선사들, 실적 전망 상향 조정

컨테이너선 호황이 지속되며 선사들이 2021년 실적 전망치를 상향함. 1등 선사 Maersk는 EBITDA(상각전영업이익)을 기준 85~100억에서 180~195억달러로 상향함. (선박뉴스)

Capesize bulkers see the highest spot rates since May

Capesize bulker의 스팟운임이 목요일(5일) 36,000달러/일을 초과하며 5월 이후 최고점을 기록함. 철광석 수출량 증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40,000달러/일 초과, 최대 50,000달러/일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홍콩 Seaspan, 중국 양쯔강 조선에 LNG추진 컨선 발주

홍콩 Seaspan이 중국 양쯔강 조선에 LNG추진 7,000TEU급 컨선을 발주함. 확정분 10척에 옵션 5척을 계약함. 인도기한은 2023-2024년임. (코리아쉬핑가제트)

Namura Shipbuilding makes VLGC debut with Phoenix Tankers deal

일본 Namura Shipbuilding이 Mitsui OSK Lines(MOL)로부터 첫 VLGC를 수주함. 87,000CBM VLGC 두 척은 2023년 이후 인도될 예정임. 세계 최대 암모니아 운반선이 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Tanker owners feel pain from China's destocking and climate pledge

세계 최대 해상수송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탱커 수요를 견인해왔지만, 탈탄소정책과 재고축소 움직임으로 올해 중국발 수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중국은 작년 코로나19가 심화되었을 때 낮은 가격에 재고를 많이 비축해두었을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